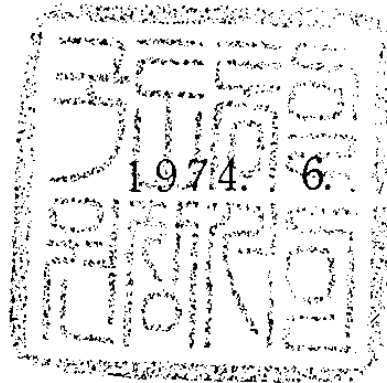


국통 74-1-13

중공의 대남북한 등거리의 교유도방안



국토통일원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1974년도 전반기 용역  
과제에 관한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4. 6.

연구기관 : 전국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연구책임자 : 박 동 희

연구위원 : 윤 경 우 한 정 일

# 目 次

1	序 言 .....	6
2	中共外交政策의 基本路線 .....	9
	1) 中共外交政策의 歷史的 背景 .....	9
	2) 中共外交政策의 基調 .....	13
3	中共의 对南北韓政策 .....	22
	1) 1950年代의 中共의 对南北韓政策 .....	22
	2) 1960年代의 中共의 对南北韓政策 .....	29
	3) 1970年代의 中共의 对南北韓政策 .....	36
	4) 中共의 对韓國政策의 展望 .....	43
4	独 . 소 国 交 正 常 化 .....	48
	1) 소련의 对西方接近政策 .....	48
	2) 西伯林과 소련의 새戰略 .....	50
	3) 소련의 对유럽政策 .....	57
5	結 論 誘導方案 .....	61

## 1. 序 言

오늘날 世界에는 完全한 뜻의 獨立國家가 없다. 어느 나라도 비록 超大強國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認知한 自國利益만을 基礎로 意思決定을 할수는 없다.

다만 強大한 나라일수록 다른 나라의 意思에 매이는 정도가 적어질 뿐이다. 즉 意思自由度는 自國과 相對方 國家사이의 힘의 격차에 따라 定해진다고 볼 수 있다.

韓國은 지난 25年間 獨自的인 外交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다. 世界最強의 強國속에 싸여 冷戰의 前哨基地라는 어려운 자리에 被動的으로 서게된 韓國은 美國의 極東外交政策의 큰 테두리속에서 美國을 거스리는 脫冷戰外交를 獨自的으로 行할 能力은 갖지 못했다.

韓國은 이러한 風土를 너무 깊이 自認한 나머지 對共產黨 外交는 스스로 포기한 狀態였었던 같다. 따라서 韓國이 美國의 意思에 反한 對中共外交를 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理解할 수 있다. 그러나 1970年代의 和解構造속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餘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한번 再吟味해볼 必要가 있다 하겠다.

지난 25年間 中共은 韓國을 「回避」했고 韓國은 中共을 「已避」해온 狀態에서 피차간에 外交不在 내지는 不連續外交의 狀態를 유지 해온 셈이다. 이것은 勿論 1972年을 基點으로 하는 美·

中共 「데탕트」로 새로 展開되는 새 極東政治秩序에 앞서는 時代의 歷史的 이야기 이다.

1970 年代의 極東政治秩序는 美·中共, 日·中共의 關係 改善을 主軸으로 急激히 改編되어 가고 있다. 美의 對中共 包圍網의 가장 強力한 前哨基地였던 韓國은 改編되는 새 秩序에 맞추어 美國의 對亞政策의 지렛목 役割로 機能變化를 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美國의 對中共政策의 緩和는 韓國이 가지는 独自の 外交의 幅을 크게 넓혀주고 있다.

韓國은 美國의 對中共強硬 策에 呼應해야 한다는 制約에서 많이 풀려나왔다. 그리고 全世界的인 脫이데올로기 風潮에 極東도 開放된 이상 韓國은 최소한 國際政治的 側面에서는 「이데올로기」의 相異에 過去처럼 強하게 拘束받을 必要도 없어졌다 하겠다.

또한 中共도 韓國을 美國과 반드시 直結시켜 認識할 수 없는 새로운 時代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韓國이 갖는 独自の 外交의 幅에 따라 中共은 自體의 安保에 큰 影響을 받게 된다는 것을 理解하게 될 것이다. 특히 中·蘇紛爭을 前提로 한다면 韓國의 地政學的 位置는 아주 重要해진다. 蘇聯이 中共의 大洋進出을 封鎖하기 위하여 中共의 포위政策을 계속해 간다고 想定하면 韓國은 그 포위망의 아주 重要한 하나의 고리를 이루는 位置에 있게 된다. 따라서 韓國이 蘇聯影響하에 드는 것은 中共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事態일 것이다.

또한 日·中共의 最近의 和解분위기를 前提하면서도 日本의 再武

裝可能性은 中共으로 하여금 對日警戒心を 늦출 수 없는 立場이며 中共은 韓半島에 日本이 교두보를 굳히는 일은 반가울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中·蘇紛爭이 美·中共의 和解를 不可避하게 하였다면 中共에게 있어서는 美國과 막히지 않은 接近路가 確保되는 것이 重要하다고 볼 수 있는바, 그것은 中共의 對美通路의 하나인 韓國이 가지는 比重도 따라서 커진다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韓國과 中共간의 地政學的의位置 關係는 오늘날 더욱더 그 比重을 더해가고 있는 韓國과 中共間的 黃海를 中心으로한 海底資源문제로서 兩당사자간의 關係改善을 더욱 必要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中共은 對南北韓等距離外交誘導方案을 摸索하기 위해 「中共外交政策의 基本路線」이 무엇인가를 檢討하고, 다음에 中共政權이 樹立된 이후 「中共의 對南北韓政策」이 어떻겠는가를 調查해 보겠다. 뿐만 아니라 「獨·蘇國交正常化」過程을 통해서 우리는 中共의 對南北韓等距離外交誘導方案을 그어면 示唆點을 찾고자 한다.

## 2) 中共外交政策의 基本路線

### 1) 中共外交政策의 歷史的背景

「세계 인구의 눈을 차지하고 있는 한民族을 국제 사회의 外廓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세계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만드는 것은 안정된 세계 질서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못한다는 닉슨 미국 대통령의 「對議會報告書」(1973.4.3日字)는 현재 국제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中共의 諸問題와 위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1949年 10月 1日 中共이 건국하기 이전에 겪은 困辱과 건국 이후 四半世紀가 지나 U.N의 안전보장이 사회의 代表權을 얻게 되기까지의 중국의 前後 역사는 悲情의 국제 사회에서 그들이 어떻게 浮沈했던가를 매우 劇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中共의 建國 前後의 역사를 左右한 外交路線이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것은 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論者에 따라서는 그것이 共產主義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달리는 中華思想이나 아니면 民族主義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혹 前者의 입장을 취하는 論者일지라도 中共現代史에 있어서의 기본노선은 민족주의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中共의 外交政策은 여러 가지의 이데오르기가 複合한 가운데에 이루어진 하나의 열매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中共 外交政

策의 이데오르기적 측면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다음의 3 가지 점을 그 이론의 前提로 삼고 있다.

첫째로 여기에서 누차 언급되는 中華民族主義는 현재 中共의 그것, 바꾸어 말하면 모택동思想에 포함되어진 中華民族主義를 주로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는 이와 別個의 것이다.

둘째로 한국과, 한국전쟁에 관련을 맺었던 서방국가들 사이에는 지난날의 旧惡으로 인하여 中共을 현대사의 「惡의 震源地」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이는 사실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지금에 와서는 그와 같은 관념을 고집하는 것은 냉엄한 국제적 현실에 비추어 볼때에 결코 得策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論旨는 지난날의 中共의 過誤를 糊塗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셋째로는 韓國의 英글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긴 역사를 통통하여 中華民族主義의 半陰影地에서 살아온 한국인으로서는 다소의 주관이나, 편견이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 전개된 論理와 相馳되는 三國人의 글은 결코 이 글과 모순을 이룩는 것만은 아니다.

中共의 이데오르기나 毛沢東의 思想, 또는 中共의 外交政策은 그들의 現代史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즉 현대의 中共의 外交政策은 汚辱으로 점철된 中國 現代史의 산물인 것이다.

威豐帝를 잃은 淸朝 말엽의 中國史는 그들의 역대 王朝의 몰락



과 그 패권을 함께 하고 있다. 王政의 無能 腐敗와 이에 따른 농민계급의 빈곤은 中國을 衰殘의 길로 몰고가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사의 潮流가 淸朝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던들 그들의 역사는 어느 왕조의 滅亡과 마찬가지로 王統의 교체에 불과한 평범한 역사진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中國에게 매우 불리하게끔 世界史의 潮流가 흐르고 있다.

中國의 내정이 문란하여 國基가 흔들릴 무렵 공교롭게도 서구 사회에서는 미완성된 자본주의의 결실을 위하여 취약화되어진, 그러면서도 자원이 넉넉한 공격 목표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초기 자본주의의 상품 판매를 위한 시장과 원료공급지가 무엇보다도 시급하였다.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그들에게는 남부에서 생산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면화 수출이 바람직하게 되었다. 미국 보다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포르투갈이었다. 이들은 東洋의 秘境의 나라에서 나오는 珍品들, 이를테면 茶나 비단과 같은 기호품들이 그들의 구미를 자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들 西歐 海洋 國家들은 자신의 保有銀이 中國 大陸으로 과도하게 유출되는 貿易 逆調現象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국내 산업자본의 형성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그들은 부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은 이 문제로 인하여 남달리 타격을 받고 있

었다. 그리하여 英國은 그들의 전통적인 제국주의적 수법으로 大陸에 接近하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의 短少한 野獸가 무기력한 그러나 살찐 사슴을 만난 것처럼 英國은 포득스런 大魚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이로부터 中國의 비극은 그 幕을 열었다. 阿片戰爭(1841-2)에서 비롯된 戰端은 애로우호事件(1856), 太平天國의 亂(1850-1864) 英仏聯合軍의 北京 함락과 北京條約의 체결(1860), 그리고 義和團의 亂(1900)을 거치는 동안 中國 민족은 그들의 긴 역사 동안에 최초로 그리고 가장 쓰라린 西方의 침략을 겪었다.

지난날 南蠻·北狄·東夷·西戎을 길타하면서 조공을 받고, 隣邦王國으로부터 조아림을 받던 中國은 이제 자신의 비극을忍苦하면서 자신의 榮辱을 되씹어보기에 이르렀다. 그들에게는 四海를 복속시키고 文明을 施惠하던 한 우월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漢民族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써 西歐에 대항하는 것이 上策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여기에서부터 옛날과는 다른 근대적 의미로서의 中國民族主義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中國 민족의 위대한 각성이었다.

당시에 中國 또는 東洋에 上陸했던 西歐의 제국주의는 어느 모로 보나 도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버드大學의 루퍼트·에모슨 교수가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은 자신의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방법을 서슴치 않고 東洋

민족에게 적용하려고 시도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방법이 마치 文明의 施惠인냥 후진 민족들을 기만한 事例를 우리는 주위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이익의 交互에 있어서 西方측으로 일방통행적이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東西 관계의 비극이 있었다.

이와 같은 西勢의 東漸 속에서 중국민족은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중국민족이 생각하기에는 西歐人들이 우수한 과학 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그것이 그들의 인종적 우월성이나 문명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 자신이야말로 문명의 창시자이며 문화의 중심지라고 몇천년이나 믿어왔던 중국민족으로서 그와 같은 西歐人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東洋的 헬레니즘의 후손들은 자신의 역량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中華思想은 근대적 민족주의로 潤色되어 탈바꿈을 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오늘날 毛沢東 思想과 中共 外交政策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2) 中共 外交政策의 基調

中共의 外交政策의 基調는 크게 다음의 3大 路線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다.

### ( i ) 民族主義

오늘날 中共의 外交政策은 그 실무면에서는 周恩來의 活

躍相이기는 하지만 그 內容을 엄격히 살펴보면 그것은 毛沢東思想의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다. 자기민족의 쓰라린 과거를 비교적 近距離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毛沢東의 根本思想은 民族主義를 그 첫째로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毛沢東의 民族主義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는 古代 中華思想에로의 복귀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이 감격하고 奮起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에 대한 회고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현대를 살고있는 中國人은 지난날 先祖들이 구가 했던 文化的 選民으로서의 긍지를 되찾으려는 강렬한 열망에 불타고 있다. 그들에게는 四海가 叩頭하였던 역사가 있으며 인류·문화의 중심지로 자처하는 오만이 있다. 따라서 멀리는 자신의 역사가 곧 人類 文化의 榮祥과 일치하고 있을 만큼 유구한 것이라고 믿는 그들로서는 그와 같은 복고주의적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 그다지 무리할 것도, 그리고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다.

스스로를 중원이라고 믿고 그들의 신념과 이러한 역사상항을 되찾으려는 그들의욕망은 현재의 中共의 對外政策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둘째로는 1840年代에서부터 1940年代까지 1세기 동안 그들의 선조들과 자신들이 함께 겪었던 비극이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겠다는 그들의 각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편戰爭 이후로부터 의화단사건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에 걸쳐 그들이 몸소 체험한 서방세력의 침략행위를 다시는 겪어서는 안된다고 그들은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 이외에도 그들은 자신이 중주국의 자처하던 隣邦國家들이 자신의 세력권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분개하고 있다.

세째로는 國難에 대한 자신의 민족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830년대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공산당의 투쟁기간 동안에 中共의 지도자들은 劣勢에 놓여 있는 당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으기 위한 표적을 찾기에 게으른 적이 없었다. 國共鬭爭期에는 「자본주의와 그 앞잡이」라는 표제로써, 건국초기의 어려움을 당하여는 「미제국주의」라는 표적으로써 민족 감정에 끊임 없이 호소하였고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中共軍의 士氣는 지속될 수가 있었다.

사실상 太平天國의 軍隊가 勝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충천하는 사기가 그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 보다는 잘 알고있는 毛沢東은 민족의 단합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민족주의를 전략적으로 십분 이용하였다.

네째로는 中共이 旗手요 중추를 이루고 있는 제3세력으로 하여금 反西鬭爭의 隊伍에 참가토록 호소하기 위한 전략적 배려를 내포하고 있다. 西歐大戰을 통하여 發出한 신생국들은 서구진용의 식민지주의로 부터 고초를 겪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탓으로 민족주의는 이들을 어우를 수 있는 최선의 기치로 등장하게 되었다. 중공은 신생국으로서의 국제적 낙후성을 벗어나 諸強과 對坐할 수 있는 길은 또 다른 제3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그 기수의 임무를 맡기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우선 아세아 국가에게 민족주의를 표방함으로써 그들의 호감을 유도 하였으나 중공이 명실공히 세계의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의식한 나머지 그와 같은 지역 주의적 요소는 다소 지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ii ) 平和共存

1949年10월에 中共이 일단 건국의 기틀을 잡고 共產 陳嘗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얻게 되자 中共은 그들의 외교 노선으로 平和共存을 표방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입장을 유리 하게 이끌기에 노력하였다. 이와같은 中共의 노력은 건국 초기에 임시헌법으로 채택한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 제7장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제 5 4 조 :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정책의 원칙은 自國의 독립, 자유 와 영토주권의 보전을 보장하고 국제적 항구 평화와 각국 인민 사이의 우호 협력을 옹호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것이다.

제 5 6 조 : 국민당 반동파와 관계를 끊고 또 중화민국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외국 정부에 대해서 중화인민 공화국 정부는 평등호혜 및 영토, 주권의 상호 존중을 기초로 하여 이와 교섭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중공이 전국 초기에 이와 같은 平和路線을 지향한 것은 대체로 신생국으로서의 전략적 효과를 노린 것이었음을 그 직후 자신의 平和 로선에도 불구하고 韓國戰爭에서 侵略者로 그 내막이 如實히 증명된 셈이었다.

1950년의 韓國戰爭에서 侵略者로 규정된 이후에도 中共은 平和 共存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中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51年末부터 아세아 수개국의 공산당 내부에서는 폭력으로부터의 轉換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52年 이후부터는 세계정치의 현실과 폭동 전술의 실패로 인하여 그들은 침략 정책의 변경이 불가하게 되었는데 소련이나 중공 역시 이와 같은 전환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平和共存의 노선은 1954年으로부터 1959年까지 그 頂點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1959年の 라오스 內紛으로 그 막을 내리었다.

中共의 平和共存이 구체화 된것은 소위 「평화 5原則」이었다. 즉 1954年 4月, 티베트에 관한 中、印간의 협정에는 다음의 5개 平和 共存原則이 합의되었다.

1. 상대국가의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2. 침략 금지
3. 상대국가의 내정에 대한 상호불간섭
4. 평등과 상호 이익의 증진
5. 평화공존

이 합의사항 중 앞의 4개항은 이미 1950年 2月の 中、소 조약에서 명기된 것이며 제 5항은 그들의 평화공존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표명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平和共存의 原則은 「세계의 모든 나라는 대소、강약이나 각자의 사회체제에 구애됨이 없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周恩來의 연설(1954.6月 뉴델리에서)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무력혁명을 그 이데오르기의 주축으로 삼고 있는 공산주의의 야누스적 측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iii) 共產革命 理論의 수출

마르크스가 그의 共產黨宣言에서 「美國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친 데에서부터 공산주의의 국제적 성격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 국가내의 자본주의적 모순을 타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大命題를 삼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이론을 각국에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었다.

중공의 이와 같은 혁명수출 이론은 이미 건국 초기에 발표된 다음과 같은 외교전략에서 구체화되어졌다. 즉,

첫째로,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와 그 추종자의 압제에 자신 반대하고 다른 일체의 계급정당、단체、개인과 단결하여 폭넓은 전국적인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제국주의와 그 추종자에 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전개한다.



둘째로 이 전국적인 통일전선은 계국주의보다 현신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그의 공산당에 의해 지도되고 또 공산당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세째로 노동자계급이 민족통일전선을 훌륭하게 이끌어내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로써 무장하고 엄격한 규율을 받은 공산당을 결성하여야 한다.

네째로 이와 같이 결성된 공산당은 무력투쟁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들의 무력투쟁은 많은 식민지, 반식민지의 민족해방투쟁에 있어서 주요한 투쟁형식이 된다.

위와 같이 중공의 계급투쟁이론은 필연적으로 혁명이론의 수출로 귀결됨을 볼 수가 있다. 中共이 외국에 공산혁명을 수출하는 원칙으로서는

첫째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둘째 미국의 介入度를 고려할 것

세째 혁명의 성공도를 측정할 것

을 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에 副應하기 위해서 中共은 혁명 수출의 대상국의 순위를 ①東南亞 및 접경 국가 ②기타 아세아 국가 ③아프리카諸國 ④라틴, 아메리카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모택동은 혁명의 전위그룹을 레닌과는 달리 貧農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혁명수출의 대상국가로는 農業國家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西歐의 공업국가에서 毛沢東의 사상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原則에 근거하여 中共은 다음과 같은 방법과 순서에 의하여 해외에 혁명이론을 수출하고 있다.

첫째로 외국 內에 既存하고 있는 共產革命 조직을 발전하거나, 기존 조직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결성시킨다.

둘째로 그 조직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정부군에 항전할 수 있는 신념을 심어준다.

셋째로 中共 자신이 저들의 혁명적 노력을 만족할 만큼 지원할 수 있는 용의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中共은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海外에 혁명이론을 수출하고 있는데 韓國戰爭에의 參戰, 동남아 內戰에 있어서의 共產化운동,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反政府 유격전 등은 이와 같은 패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中共의 외교정책을 역사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그들은 첫째로 굳건한 공산주의 국가의 건설 둘째로 中華主義에로의 복귀 그리고 셋째로는 1840~1900年代의 비극의 방지를 그 목표로 삼고 있다. 모택동은 中國의 전통적인 외교전략인 以夷制夷의 방법에 의하여 전국 四半世紀만에 국제 무대에 列強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中共이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된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으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가 있다.

첫째로는 미·소의 화해 무드를 조장했다는 점이다. 中共이 비대화 됨에 따라서 소련은 군사적 反帝鬪爭 보다는 서방과의 평화적

인 협조가 자신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1962年 인도가 中共의 침략을 받았을 때 미·소가 협력하여 인도도를 지원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로는 소련은 개발도상의 신생 공산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산주의 혁명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같은 공산진영 内の 적대세력 보다는 이념이 다른 西方 세력이 오히려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셋째로는 中共의 이상비대 현상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열강들은 핵무기의 파리를 서두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자신들로부터 압제만 받던 한 후진 민족이 핵무장화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분명히 畏怖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 3. 中共의 对南北韓政策

中共의 对外政策의 變化를 편의상 時代別로 다음과 같이 区分하여 韓半島와의 關係를 서술하고자 한다. 즉 첫째로 1950年代까지는 中共의 对外政策은 中소의 友好的 紐帶立場에서 立案되고 施行되었다고 보고, 둘째로 1960年代부터는 露骨化하기 시작한 中.소의 紛糾와의 關係面에서 檢討하겠으며, 셋째로 1970年代 初半期부터 摸索돼 오던 美.中和解에 따른 急進的인 變化에 焦點을 두고자 한다.

#### 1) 1950年代의 中共의 对南北韓政策

美國이 日本을 再武装할지도 모른다고 맥아더 장군이 1950年 新年辭에서 言及했을때 「韓國은 中国과 齟齬關係가 있다」는 中国의 옛 格言은 中国共産党에게 새로운 意味를 賦与하였다.

1937年부터 45年에 걸친 中.日戰爭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中国人들에게는 日本의 再武装은 커다란 위협이고 더구나 美國의 支援을 받고 있는 日本은 더욱 그러한 위협적인 存在였다. 이 때문에 어려운 協商過程을 통하여 毛沢東은 1950年 2月14日 中.소條約을 調印하는데 심혈을 경주하였다.

中国의 文化圈 影響下에 있는 小国인 韓國은 中国의 政治的 影響力에 종속적이었으며 이 關係는 때로는 軍事的 壓力에 의해서 強要되기도 하였다. 延安時節에 中国共産党은 朝鮮共産党運動의 一

派(延安派)와 무척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하지만 적어도 1948年 소聯軍이北韓으로 부터 철수할때까지는北韓은 소聯의 위성국이었고, 그당시延安派 및 親中共分子들은 親소聯派인 김일성과 그 一党的 統制下에 있었다.

이러한 狀況, 즉 東北아시아의 戰略的 重要性和 中·소同盟에 있어서 소聯의 明確한 힘의 優위를 勘案하여 毛沢東은 1949年에서 1950年까지 스탈린에게 東南亞細亞에서 中共의 影響力 行使權을 承諾받은 대신 이곳 韓半島를 둘러싼 東北亞에서는 소聯에 主役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에도 不拘하고 中共이 韓國戰爭에 대한 준비를 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들北韓·소聯·中共의 세 共產政權은 1950年 1月경에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美國은 南韓을 방어치 않을 것이라는 똑같은 結論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美國의 支援을 받은 日本이 이 힘의 眞空을 메꾸기 전에 韓國의 統一은 平壤政權에게 아주 重大한 課業이었으며 北京과 모스크바에게 매우 바람직한 것처럼 보였다.

물론 1950年初 中共은 소聯의 重裝備가 滿洲鐵道를 통해 이송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中共軍掌握하에 있던北韓軍의 指揮權을北韓에게 양도하였다. 金日成은 自身の 政治的 理由 때문에 元來 計劃된 戰爭挑發日字를 수주일 앞당겨 6月25日 侵略을 감행하여 그의 敵과 同志들을 同時에 놀라게 했다.

그는 이 措置로 因하여 現在까지 소聯이나 中共에 대하여 共히

独立的인 行動을 取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950年 8月中旬 유엔軍이 韓半島를 구하는데 성공하고 맥아더 將軍이 好戰的인 反共主義者라는 것을 알았을때 中共은 韓國戰爭에 더욱 날카로운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었다. 맥아더가 李承晩의 參戰자이고 그가 李承晩政府를 38度線 以北에 까지 擴大시키려는 決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中共은 잘 알고 있었다.

사실 10月안에 압록江을 越境하겠다는 맥아더의 공언은 이 사실을 뒷받침했었고 그때만 해도 그는 10月12日에 中共志願兵들이 비밀리에 압록강을 渡江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中共은 이러한 韓國戰에 어떠한 戰略으로 臨했는가를 1950年 9月23日字 人民日報와 中國外交部 代辦人의 聲明을 통해 보면 아래와 같다.

「中國革命의 前期三段階 즉 北伐戰爭의 第1期, 土地革命戰爭의 第2期, 抗日戰爭의 第3期에서 朝鮮人은 革命戰爭에 參加했다.

朝鮮人民은 그들의 生命을 희생으로 하고 그들의 鮮血을 흘리면서 中國人民과 더불어 帝國主義와 封建主義 反動勢力을 打倒하기 위하여 싸웠다. 中國人民은 그들의 이와같은 狹氣있는 行爲를 영원히 감사하고 마음속에 아로새겨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戰友인 朝鮮은 美帝國主義者의 미친듯한 侵略에 휩쓸리고 있다.

우리 祖國이 심각한 위협에 빠져있을때 우리들 中·朝人民은 多年間 共同鬪爭한 友情에 감사드리면서 다같이 中國人民과 朝鮮人民은 옛날부터 生死를 같이하여 患難을 같이한 骨肉의 兄弟이다.

어제는 朝鮮人民이 中國人民의 해방사업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  
오늘의 中國人民은 朝鮮人民이 中國人民을 원조한 것처럼 용감하게  
朝鮮人民과 한몸이 되어 美國侵略者를 擊滅하자」

中共은 이와같은 그들의 方針을 세우는 동시에 100萬에 가까운  
靑年들을 志願兵으로 參戰시켜 北韓으로 들어 밀기 시작했다.

1950年 10月 上旬 中共軍은 林彪의 指揮下에 第4野戰軍 精  
銳 18個師團 約20萬과 彭德懷 指揮下의 第9, 第13集團軍 30個  
師團 約30萬이 압록강北岸에 集結하여 있다가 美軍이 38度線을  
넘은 10月9日이 지난 3日後의 10月12日부터 압록강을 渡江하  
기 시작했다.

이처럼 中共軍이 北韓에 들어오게 되자 北韓에서는 延安派가 차  
츄 그 頭角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득세하기 시작한 延安  
派들도 美國의 폭격 및 신무기 사용등으로 中共軍의 死傷者가 격  
심하게 되자 極力 休戰을 主張하게 됨에 따라 親소派와 提携하여  
主戰派의 首領이었던 第1副首相 朴憲永(前南勞黨黨首), 監察委員長  
李承燁, 産業部長 張時雨등을 肅清하게 되었으며 休戰問題는 급속히  
이루어져 1953年7月 韓國戰은 停戰하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 소聯은 中共軍이 韓國戰에 參加한 몫으로 北韓에  
대해 그 영향력이 갑자기 強化됨을 보고 北韓에 대해 10億「루  
블」( \$ 2億5千萬, 當時 1\$ = 4R )을 파괴된 北韓의 國民經濟와  
生活再建을 위해 使用토록 보내왔다.

그러나 韓國戰爭을 契機로 北韓과 中共과는 그 사이가 더욱 긴

밀하게 되었으며 1953年 11月 中旬頃 金日成은 政府代表團을 引率하고 北京을 訪問 政治, 經濟, 軍事面에 있어 協調할 것을 다짐하고 특히 經濟面에 있어 中共은 1950年 6月 25日의 韓國戰爭 發生日로 부터 1953年末까지의 期間에 援助한 一切의 物資와 費用은 無償으로 한다고 決定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援助로서 1954年 부터 1957年 까지의 4年동안에 8億元(約3億 1953 ~ 1958년에는 1\$ = 2.5元)의 無償援助를 주어 國民經濟의 恢復을 도모하는 동시에 戰爭으로 파괴된 모든 鐵道建設에 대해서 援助할 것을 約束했다.

이로 因해 中共의 韓國戰 介入이 當時 Stalin의 強力한 獨촉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一般的 定說이 있기는 하나 어떠한 中共의 韓國戰 參戰 및 援助는 中共의 北韓에 대한 영향력을 증진보다 훨씬 강화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注目되는 點은 南韓에서의 美軍의 撤収保障없이 中共軍이 撤収했다는 사실이며, 北京當局은 이미 1954年 10月에 中共軍을 87,000名이나 撤収시켰고, 1955年 4月부터 10月까지는 52,000名을 追加로 撤収시킨바 있고, 또한 金日成의 要請에 따라 1958年 10月까지 자연이 되었다고 하지만 中共軍이 完全히 北韓에서 撤収할때만 하여도 南北韓의 軍事的 關係는 그때의 狀況으로 보아 北韓이 劣勢에 놓여 있음을 알수가 있다.

그리고 中·소·北韓間의 관계도 當時의 中共·北韓의 對內外的 사정으로 보아 友好 및 相互協力の 段階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



겠다. 당시 中共은 極東에서의 어떠한 勢力不均衡의 招來도 願치 않았고 可能하다면 南韓에서의 美軍撤収와 美·대만방위를 포기케 해서 유엔에 加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中共이 그들의 軍隊를 철수시킨 의도는 美軍의 계속적인 駐屯과 모든 外國軍은 同時에 韓半島로 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共產主義者들의 原則적인 입장때문에 中共은 결코 北韓을 衛星國化 시키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54年の 韓國問題에 관한 제네바 회의의 실패는 中共軍의 철수를 지연시키는 要因中の 하나였으며, 當時 北韓에서의 支配的 政治 傾向은 1956年 2月 第20次 소聯黨大會에서 있었던 金日成 權威에 대한 도전을 이겨내고 1958年初 延安派를 肅清한 후 모스크바와 北京의 独立的인 태도를 견지하며 金日成이 실질적인 獨裁者로서 자리를 굳히는 時期였다.

1956年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탄핵을 契機로 中·소·北韓間의 三者間에는 서서히 괴멸이 일기 시작하였다.

첫째, 金日成의 權座를 탈취하려는 延安派의 策動이 있었는데 그 重要動機는 다음과 같다.

1959年 4月 北韓勞動黨 第3次大會에서 農工竝進政策을 2次 5個年計劃의 當面目標로 承認받았다. 金日成은 이에 必要的 所要資金을 支援받기 위해 東歐 및 소聯을 방문했었는데 이 結果를 청취키 위해 同年 8月 30 ~ 31日에 勞動黨中央委員會가 開催되었다.

이때를 期해 延安派의 崔昌益과 소聯派의 朴昌業이 結託하여 金日成을 逐出하고 集團指導體制를 樹立하려다 失敗로 끝난 事件이

發生한바 있다. 金日成은 韓國戰에서 經驗한 中·소의 態度로 보  
는 이번의 경우로 보든 對内外政策에 있어 独立的이고 主体的인  
施行만이 南北統一과 国力을 成就 및 培養할 수 있는 先決要件임  
을 切實히 認識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經濟面에서도 1955年 소·北韓間 貿易高는 年間 總交易量  
이 80.8 %였던 것이 1958년에는 57.0 % 줄어든 반면, 같은  
期間에 中共·北韓間의 貿易高는 9.0 %에서 27.3 %로 增加되었  
고 더우기 第1次 3個年計劃 期間中 소聯의 援助는 7千5百萬달러  
인데 反해 北京은 當時의 事情으로 보아 相当하리만큼 5千萬달러  
를 支援하였다.

이와같은 소聯政府의 不振한 援助行爲는 2次 5個年計劃을 成功裡  
에 完成시키기 위해서도 內資를 極大化할 수 밖에 없어 마침 中  
共이 推進한 大躍進運動이 北韓의 「전 리마운동」의 모델이 되었다  
는 사실이다.

세째로 美國政府는 1958年 1月 南韓에 戰術用 核武器를 搬入  
했음에도 소聯當局은 中共·北韓當局을 위해 아무런 措置를 取하지  
않았음을 들수 있다.

어떻든 中共의 外交政策은 1952年 3月 21日 宋慶齡, 郭沫若  
彭真 等 11名의 連名으로된 亞細亞 太平洋地域의 安全과 平和를  
위한 平和會議開催에 관한 發記書를 비롯하여 1952年 10月 3日  
亞細亞太平洋地域 平和會議에 있어서의 郭沫若 中共代表의 報告  
그리고 1954年 2月 18日 「베르린」 四國外相會議에서 發表한

韓國問題와 越南問題를 討議하기 위하여 「제네바」  
회담 것을 示唆한 것에서 그리고 1954年 4月 29日 中  
共首相 周恩来와 印度 「넬루」首相과의 「티베트」에 관한 中·印  
協定の 前文에서의 平和五原則 「領土主權의 相互尊重, 相互不可侵,  
相互內政不干渉, 平等互惠, 平和共存」과 1955年 4月 「반둥」會議  
의 十原則에서 平和共存 志向的인 柔軟外交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中共은 軍事的 영향력에 의한것 보다는 經濟的, 文化的 내지  
는 政治的 영향력의 增大를 위한 戰略으로서 柔軟外交를 韓半島에  
서도 誇示했다고 볼 수 있다.

## 2) 1960年代의 中共의 對南北韓政策

平壤만큼의 強度를 가진것은 아니었으나 中共은 1960年  
4.19 韓國學生革命으로 因한 李承晚政權의 붕괴와 南韓에서의 弱  
體政府出現으로 南北統一을 위한 會議開催의 主張이 대두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中共의 관심을 集中시킨 것은 아이젠하  
워 大統領의 訪英日程을 取消시키고 기시首相의 辭任을 強要했으며,  
수정된 美·日安全保障條約의 10年間 연장의 전망을 흐리게 한  
1960年 봄의 日本政治에 모였었다. 그런데 1961年 5.16 南韓軍事  
革命에 의해서 弱體政府가 넘어졌을때 中共은 失望하지 않을수 없  
었다. 이러한 軍事革命은 또다시 美日의 提携로 韓半島의 情勢가  
武力衝突로 熱戰化할 위험성을 內包하고 있다고 看做하게된 平壤當

局은 서둘러 모스크바와는 1961年 7月6日에 北京과는 7月11日에 相互防衛條約을 맺었는데 特記할 點은 後者の 경우가 強硬한 語調로 記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961年 7月11日 北京에서 金日成과 周恩来 사이에 맺어진 「朝.中友好援助 및 互相協助에 關한 條約」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1條 締約雙方은 亞細亞 및 世界平和와 各國人民의 安全을 守護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努力을 다할 것이다.

第2條 締約雙方은 締約雙方中 어느 一方에 대한 어떠한 國家로부터의 侵略이라도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모든 措置를 共同으로 取할 義務를 진다.

締約一方이 어떠한 一個의 國家 또 몇개 國家들의 聯合으로 부터 武力侵攻을 당함으로써 戰爭狀態에 陷入하게 되는 境遇에 締約相對國은 모든 힘을 다하여 遲滯없이 軍事的 및 其他 援助를 제공한다.

第3條 締約雙方은 締約相對方을 反對하는 어떠한 集團과 어떠한 行動 또는 措置에도 參加하지 않는다.

第4條 締約雙方은 兩國의 共同利益과 關聯되는 一切의 重要한 國際問題들에 대하여 계속 協議한다.

第5條 締約雙方은 主權에 대한 互相尊重, 內政에 대한 互相不干涉, 平等과 互惠의 原則 및 親善協助의 精神에 계속 立脚하여 兩

국의 社会主義 建設事業에서 互相 가능한 限 모든 經濟的 및 技術的 援助를 提供하며 兩國의 經濟, 文化 및 科學技術的 援助를 계속 公高히 하며 發展시킨다.

第6條 締約雙方은 朝鮮의 統一이 반드시 平和的이며 民主主義的인 基礎위에서 實現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같은 解決이 곧 朝鮮 人民의 民族的 利益과 極東에서의 平和維持에 符合된다고 決定한다.

第7條 本條約은 批准을 받아야 하며 批准書를 交換한 날로 부터 効力을 發生한다.

批准書는 平壤에서 交換한다.

本條約은 修正 또는 廢棄할때 대한 雙方間의 合意가 없는 以上 계속 効力을 가진다.

本條約은 1961年 7月 11日 北京에서 調印되었으며, 朝鮮文과 中國文으로 各各 2通씩 作成된 이 두 原文은 同等한 効力을 가진다.]

以上과 같이 北京政權이 1961年 7月 11日 金日成과의 北韓, 中共間의 「友好援助互相協助條約」締結은 金日成과의 韓國軍事政府에 대한 見解에 전적으로 一致를 보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5日前에 소聯과 北韓이 거의 같은 條約을 맺었다는데 그 主要 理由가 있는 것이다.

확실히 中共과 소聯은 共히 南韓政府의 北進이나 美, 日과의 協力下에 關係再整備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평양으로

부터 好意를 사려는 競争이 이들 條約의 主要 考慮要因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諸事에 비추어 볼때 北韓当局의 態度는 當時의 國際的 趨勢와 資本主義 諸國에 대한 후르시초프의 外交態度로 보아 分明히 소聯보다 中共쪽에 기울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또한 中·소間의 紛糾가 1961年 中期부터 公開적으로 露骨化하자, 地政學的으로나 戰略的으로 또는 緩衝地로서 北韓의 位置가 더없이 中共側에는 莫重하게 思料되었던 바이다.

특히 東歐의 暴動以來 中·소와의 理念對決에서 世界共產主義運動 및 革命鬪爭課業과 民族解放戰을 올바르게 施行토록 크레믈린 當局에 促求하고 있던 中共側에게는 北韓 및 越盟政權은 물론, 필수목 기타의 共產統治集團을 더욱 自便에 同調할 수 있도록 誘引한 時期였던 것이다.

그 結果 1961年 6月 루마니아의 首都 「브카레스트」 共產黨 大會에서 取한 소聯을 비롯한 東歐共產國들의 北韓에 대한 冷待와 1963年 1月 15日~21日에 開催된 東獨共產黨 第6次大會에서는 아예 北韓代表 「이종선」이 연설할 수 있는 機會조차 얻지 못했다. 이와같이 北韓位置가 이때에 뚜렷이 中共쪽으로 기울었고 더우기 1963年 1月 30日字 北韓의 勞動新聞社說에서 「당신들은 어느쪽에 서 있느냐」라는 題目下에 修正主義者들과 이에 同調하고 있는 勢力들을 맹렬히 비난한 사실은 北韓當局이 理念面에서 中共과 밀착되었음을 立証하였다.

그러나 1965년에 접어들자 越南에 대한 美国의 積極的 介入과 南韓에서의 韓·日條約의 締結 및 南韓의 越南派兵 등으로 南韓의 對美·日 關係가 더욱 공고화된 反面에 北韓当局은 中·소紛糾의 加熱과 이에 따른 不振한 經濟援助로 말미암아 平壤政權이 對内外 的으로 어려운 境地에 當面케 되었다.

그럼으로 이를 打開하기 위한 方途는 소聯과의 接觸을 開始하는 筈에 없이 平壤当局은 크레믈린 당국에 대한 態度를 약간 전향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1965年 2月에는 코시킨 首相이 평양을 방문하여 共同聲明이 發表되었고 이에 수반하여 經濟援助 再開와 技術者 派遣, 그리고 同年 5月에는 北韓의 人民軍 總參謀 長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軍事援助를 위한 協定이 締結되기에 이 르렀다.

1966年の 南韓의 越南派兵과 美国의 對韓援助의 急增은 北韓의 安保에 대한 對外政策의 対応이 極端主義的인 強硬路線과 好戰的 方向으로 急進되었다. 그 例로는 1967年 3月 勞動黨의 權力構 造에서 林春秋를 包含하여 100名 이상의 은건파가 除去되고 1960年~61年 간에는 全体予算中 國防費支出이 19%였던 것이 1967年~68年 간에는 31.1%로 增加됐던 事實에서 지적될 수 있는바 이와같은 北韓의 好戰的 態度에 대한 中共의 態度는 우선 1950년에 發生한 戰爭과 같은 樣態로 韓半島의 統一이 이룩되기 를 願하고 있지 않음을 国内的 狀況이나 國際趨勢로 勘案하여 明 白한것 같다.

換言하면 中共은 武力衝突이 韓半島에서 發生하기를 極力 피하고 있으며 統一問題는 平和的 方法에 의해서 成就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例證으로는 1968年 1月 23日 北韓이 「푸에블로호」를 元山港으로 拉致했을때와 1969年 4月 15日(金日成의 59번째 生日과 때를 맞추어)에 美偵察機 EC-121를 公海上에서 擊墜시켰을때 北京當局은 적지 않이 당황했다는 報道가 있었다.

그리하여 北京政府는 1954年 4月 「제네바」 會議에서 南日이 主張한 「平和와 統一을 위한 提議」와 1961年 9月 第四次勞動 黨大會에서 行한 金日成의 「統一을 위한 三段階方案」에는 결코 支持할 수 없다고 當時 平壤當局에 暗示적으로 通報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中共의 態度는 競争者인 소聯과의 協力下에 이상과 같은 事件이 發生했으리라는 인상을 남기었기 때문이다.

1968年 봄에 시작된 美國의 越南戰爭 縮少傾向은 南韓에서의 人民戰爭遂行을 후퇴시키는 時期와 一致하는데 그것은 美國이 그의 注意를 東北亞에 돌릴수 있었기 때문이라 추측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根拠있는 論議는 새로운 尼克슨政府의 登場과 함께 日本을 再武裝하려는 시도가 태동되었기 때문이라고 推論하는 것이며 이 사실은 北韓과 中共에게 重大한 사실이었다.

北韓의 對南人民戰爭의 수행은 南韓政府를 위태롭게 하는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이 失敗作인 人民戰爭이 日本의 再武裝을 유발할런 지도 모르는 念慮를 자아내게 했다. 이것은 특히 1969年 11月



닉슨. 사포會談에서 日本政府가 韓國政府와 대만의 安全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선언했을때 더욱 뚜렷해졌다.

이 聲明에 대한 北京政權의 경악은 中國共產党内 毛沢東 一派에게 특히 뚜렷하였다. 周恩來는 적어도 가끔은 아세아 大陸이나 다른 어떤곳에서의 日本의 軍事的 役割에 대한 嚴格한 制約에 대한 現實的 理解를 갖고 있었으나 그는 곧 反日感情을 美國과 中共間의 關係正常化로 유도할 수 있는 機會로 이용했다.

다시 말해서 中共과 美國과의 關係正常化는 美日關係를 分裂시키리라는 名目을 내 세웠다. 하지만 그 本源的 動機는 소聯과 競争하려는 것이었고 모스크바는 周恩來에게 너무도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周의 反日路線의 또 다른 目的은 南韓과 대만정부에 強調點을 둔 닉슨. 사포 커뮤니케의 機會를 포착하여 소聯의 견제와 競争에 必要한 平양의 政治的 支援을 얻기위해 利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1969年末까지 긴장된 中. 소 國境線에 따른 소聯軍의 增強은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분명히 中. 소의 國境紛爭은 어느쪽이 먼저 시작했는지는 分明치 않으나 1969年 北韓. 中共國境에서 武力衝突이 있었고 이때문에 잠시 國境이 中共側으로 부터 閉鎖되어 그해 가을에 紛糾가 종결되었는데 이것은 中. 소國境紛爭을 해결하려는 會談에서 北韓의 支持를 얻으려는 中共의 깊은 考慮의 반영이었으며 1年後에 北京政府는 조용히 北韓과 中共國境線에 따른 紛爭地域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였다.

후루시 초프沒落後와 中共의 文化革命때문에 있었던 冷却期가 지난 후 中共과 北韓 사이에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1969年 10月 1일 최용진의 中共訪問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北韓이 日本과 그들의 韓國에서의 經濟的 영향력 成長에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보일때 周恩来가 이에 同調하였던 것은 그로서는 反소 및 反日目的을 同時에 가졌던 것이다.

### 3) 1970年代의 中共의 對南北韓政策

1970年 3月 23日에는 中共大使가 평양에 到着하였고 1970年 4月 5日부터 7日에 걸친 周의 평양방문은 海洋協力企劃에 日本科學者도 參與시키자는 소聯의 제안에 抗議해서 北韓이 그 企劃 參與를 取消한 바로 후에 이루어졌다. 방문기간 동안 周는 日本非難을 신랄히 하였으나 北韓의 立場을 고려하여 소聯에 대한 勸諭은 삼가하였다.

그러나 그의 방문은 分明히 最高人民會議議長 포드고르니의 日本訪問을 眼中에 두고 행해진 것이었다.

日本과 소聯을 意識한 周의 北韓訪問은 北韓의 立場을 높여 주었으며 기실 北韓은 中共이 文化革命後 18번째로 大使를 보낸 나라이기도 하다. 1970年 6月 韓國戰爭 발발 20周年 祝典에 관하여 發表한 中共聲明은 그 어느때 보다도 강경한 反美·反日적이었으며 그것은 上記言及한 이유외에도 캄보디아 사태와 美·日安保條約의 第2次 更新때문에 더욱 가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곧 뒤이어 非公開裡의 美·中共關係 改善을 위한 措施는 始動되었다. 이 추세에 공헌한 要因들중의 하나는 一部 美軍兵力이 곧 철수할 것이며 終局에는 全美軍이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韓國政府에 설득시키기 위해 1970年 美國副統領 애그뉴의 訪韓이었다.

北京과 평양은 韓國戰爭에 의해서 成就시키지 못했던 課業을 「닉슨독트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實現할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받아 들여 졌을지도 모른다.

하노이와는 달리 평양은 보다 넓은 地域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北京과 競争하는 位置에 있지는 않다. 越南과는 달리 韓國은 北韓의 主導下에 統一되지 않는한 南韓으로 부터의 美國의 後退는 中立化시킬수 없는 힘의 空白을 招來하며 이 空白은 日本에 의해 채워질 것이라고 中共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越南과는 달리 서울은 國內叛亂의 苦痛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빙자하여 北韓과 直接關係를 수립할 수 있는 活動聖域을 北韓間에 마련할 수 없다. 이들 이유 특히 두번째 이유때문에 北京은 越盟에게 보다는 北韓의 政策에 더욱 질겁하게 同調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다른 側面에서 強大国 外國去來에 희생당할 念慮가 많은 하노이 보다는 北韓의 美·中共關係改善으로 인해 입은 피해의 위험도는 훨씬 적다.

1971年 4月에는 中共이 美國의 「핑퐁팀」을 招請함과 때를 같이하여 同年 4月12日에는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4期 第5次會

議에서 北韓外相 許淡이 8個項의 平和統一案을 提議한바 있고 同年 7月 10日에는 金仲麟이 高位使節團을 이끌고 「朝·中互相協力條約締結」의 第十周年 紀念式에 參席하였고 同年同月 15日에는 尼克슨과 周恩來가 同時에 尼克슨美大統領의 中共訪問日字를 公表하였다.

그리고 1971年 8月 6日에는 金日成이 南韓의 모든 人士, 더욱이 執權黨인 民主共和黨과도 統一問題에 協議할 用意가 있음을 밝혔고 同年 8月 10日에는 周恩來가 뉴욕타임스紙의 제임스·레스턴氏와의 會見에서 韓國戰에서 이루어진 休戰協定을 終結시키고 平和協定으로 代置할 것을 言及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同年 同月 18日에는 人民軍總參謀長 吳振宇가 北韓의 軍事使節團을 이끌고 北京을 訪問하여 北韓의 安保狀況을 論議한바 있고 同年 9月 6日에는 額數나 種類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北京當局은 北韓에 無償軍援을 提供할 것을 同意하는 合議書에 署名하였다.

이러한 諸事態의 展開는 分明히 美·中共間에 이룩할 修交에 따른 韓半島統一問題에 對備할 中共·北韓間의 調整作業이었음은 疑心할 余地가 없으며, 한편으로는 美·中の 幕後홍정에 의해 평양政權이 결코 犧牲되지 않음을 確認시킨 先制措置인 點도 있고, 다른 한편에는 韓半島의 統一時期가 成熟段階에 突入하고 있음을 勘案하여 此際에 韓半島問題를 東西의 이대올로기紛爭과 強大國政治로 부터 벗어나게 하여 北韓이 長期目標로 推進하여온 韓國人 自身이 韓國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음을 說得시킴과 아울러 이러한 和解氣運에 편승함으로써 北韓의 이미지를 國際적으로 改造

하여 北韓政權을 實用主義的인 実体로 登場케 하려는 底意가 있는 듯 하다. 그리고 日・北韓關係를 積極推進시킨 北韓当局의 속셈도 또한 交易의 增進, 技術者의 派遣, 言論人 및 學者의 交流를 통해서 北韓의 示威를 宣揚시킬뿐 아니라 經濟力의 不振을 回復시켜 重化學工業을 育成할 것이며 또한 韓國이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止揚시킬수 있는 契機로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中共은 1971年 10月 25日 유엔에 加入하게 됨으로써 中華人民共和國政府가 正式 中國을 代表하는 政府로 認定되고 지금까지 中國을 代表했던 中華民國政府는 유엔에서 追放된 事實등과 關聯하여 中共의 外交政策은 變化될수 밖에 없었다.

1972年 1月 7日 美國의 캘리포니아 샌크레멘트會談에서 發表된 「닉슨-사토키」 共同聲明에서 「韓國의 安保는 日本의 安保에 緊要하다」는 句節을 削除한 것 등은 中共으로 하여금 對美外交의 變化를 유인했었으며 더욱기 中共当局도 駐日美軍과 「오끼나와」에 設置돼 있는 美核基地는 日本의 再武裝을 防止할 制動의 役割을 할 것이며 同時에 美國이 아시아에서 退去할 時에 惹起될 「힘의 空地」를 차지하려는 角遂戰은 美軍의 아시아 駐屯만이 冷却시킬수 있음을 中共当局은 認知하고 있으며 이것을 곧 平壤政權에 說得시킬것 같다.

특히 1972年 2月 21日 「닉슨」 美大統領의 專用機 76年「精神号」가 北京空港에 着陸하자 世界의 耳目은 北京에 集中했고 1972年 2月 28日 中國上海에서 美・中共 共同聲明을 통한 美・

中共「대당트」가 成立됨으로써 美·中 兩國간의 緊張緩和에 도움이 되는 歴史的 事件이 이루어졌다.

美國은 아세아문제에 대해서는 過剩介入 보다 調節政策으로 그 座標를 바꾸는 同時에 1972年 9月末 日本의 田中首相이 中共을 訪問하여 同月 30日 中·日共同声明을 發表함으로써 아세아에 있어서는 美·소·中·日의 四極体制와 平和「무드」造成 및 中·日關係의 새로운 側面等이 表面化되기 시작했다.

中共은 이처럼 美國과 日本과의 共同声明을 통해 「대만은 中共領土의 不可分の 領土의 一部임」을 천명하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國際情勢의 和解構造속에서 1972年 7月 4日 南北共同声明이 發表되었으며 當時 中共當局은 美·中關係가 惡化되거나 日本의 再武裝이 到來되지 않는 線에 韓半島의 統一을 摸索하고자 7·4南北共同声明을 積極支持했으며 同年 7月 9日 字·人民日報 社說에서 共同声明에 담겨있는 內容을 早速히 實現하기를 促求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1973年 6月 23日 南韓의 朴大統領 「平和統一宣言」에 대한 北韓의 金日成의 이른바 「祖國統一 5大綱領」을 내놓은데 대하여 中共은 즉각 新華社通信과 人民日報를 통해 公式으로 金日成의 主張에 대해 全幅的인 支持를 表明했다. 即 周恩來는 73年 6月 24日 저녁 北京에서 開催한 「말리」 國家首班의 答禮宴會에서 『金日成은 어제의 重要한 演說에서 祖國統一에 대한 全体朝鮮 人民의 強力한 念願을 反映하는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새로운 方針과 다섯가지 方案을 내놓았다. 北韓政府의 이 새로운 發起는 朝鮮의 自主的 平和統一과 朝鮮半島에서의 緊張狀態와 加一層의 緩和를 진실로 도울 것이다. 中國政府와 人民은 이 發起를 열렬히 환영하고 그에 확고한 支持를 表示한다』고 言明했음에 비해 소聯의 타스通信은 잘못하게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緊張狀態의 緩和』등에 관해 論評없이 보도한 것에 불과했다.

그후 7.4 共同聲明 1週年紀念, 中共・北韓友好協力 및 互相 援助條約締結 12週年 紀念宴會 등에서 「5大綱領」에 대한 中共의 熱烈한 支持가 줄곧 公式報道機關인 「新華社通信」에 依해 報道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現在 中共과 北韓의 密着度가 堅固한 것은 사실이지만 北京政府는 72年 2月の 尼克슨 訪問中에 北韓의 許淡 外相이 韓國에 提議한 「8個項平和統一方案」을 支持했다. 즉 이 「8個項平和統一方案」에는 韓・美相互防衛條約의 廢棄가 명확히 挿入되어 있는데 73年 2月の 美・中共共同聲明에는 一切 이것을 不問에 任하고 있으며 美軍의 대만으로 부터의 撤収만을 決定했을 뿐이다.

그리고 第 28 次 유엔 총회에서 韓國問題處理에서 나타난 中共의 態度는 多極化構造의 具体化現象 論理에서 說明이 可能한 行動이었다. 키신저·周恩來會談과 28次 유엔총회政治委員會討議와의 相互有機的 聯関性속에서 劇적으로 獲得된 韓半島問題의 「妥協」은 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重要한 事實을 內包할 것이다. 즉 中共은 앞으로 계속 北韓側 主張의 全幅적인 支持라는 一辺度政策을 革命的言論(宣傳)속에서는 줄곧 表明할 것이나, 革命的 行動-支援은 充分히 뒤따르지 못할 것이라는 点이다.

한편 韓國政府는 1974年 1月 30日 之間 4년간 韓日間의 大陸棚開發에 관한 紛爭이 매듭된 「韓·日間의 大陸棚協定」이 締結되자 1974年 2月 4日 中共은 韓·日大陸棚協定을 「一方的 開發」이라고 비난하고 이에 대해 自國에 대한 主權侵害로 規定하고 中共과의 協議를 통해 決定해야 한다고 主張하다가 3月初에는 다시 「關係國」과의 協議를 要請하고 關係國으로서는 日本 中共 및 北韓을 들었다.

이러한 一聯의 關心事는 지난 1973年 3月 15日 中共外交部의 聲明 即 「中共近海의 海底資源은 中共에 속하며 韓國이 不法的으로 外國會社를 이 海域에 끌어 들여 中共의 海底資源을 탈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中共外交部의 聲明에 대해 24時間 미만에 韓國政府는 74年 3月 16日 金溶植 外務部長官의 聲明을 통해 黃海 및 東支那海의 大陸棚으로서 韓國이 지금 開發에 着手한 部分은 國際法에 의해 認定된 韓國의 管轄區域이며 中共이 만일



이에 대해 異議가 있다면 그 境界劃定問題에 관해 韓國은 「中華人民共和國当局」과 어느 때라도 協議할 用意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韓国外務当局의 이러한 聲明은 그것이 비록 政府라고 하지 않고 「当局」이라고 表現함으로써 政府承認의 效果를 계속 留保하고 있긴 하나 史上 처음으로 中共의 정식 国号를 불러준 것이요 또한 對話의 窓口를 열어준 것이라는 점에서 莫重한 政治的 意味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同時에 그것은 韓國이 지금 開發에 着手하고 있는 大陸棚은 國際法에 의해 認定된 韓國의 管轄 区域이며 이에 대해 中共에게 異議가 있다면 協議를 통해 그 根拠와 正当性を 밝히겠다고 한點, 그리고 中共側에 이러한 提議를 함으로써 國際紛争의 平和的解決을 위한 韓國의 성의를 明白히 했다는 점에서 크나큰 的의를 一次的으로 갖는 것이라 하겠다.

#### 4) 中共의 對韓國政策의 展望

中共을 韓國(南韓)과 比較해보면 人口에 있어서 約 25倍 領土의 크기에 있어서 約 1百倍, 正規軍 兵力數에 있어서 約 5倍가 되는 셈이다. 地理學的으로도 가까워 서울은 北京에서 두번째로 가까운 首都이고 가장 가까운 領土는 불과 2百킬로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있다. 더구나 北韓을 包含한다면 中國에 있어서는 더 以上 가까울수 없는 나라다. 歷史的으로는 中國은 韓國과는 가장 密接했던 나라로서 明·淸時代만 하더라도 1百餘個의 朝貢國用

중에서 使節과견의 빈도에 있어서나 中国側의 관심에 있어서 단연 으뜸이었다.

그러나 中共政權이 樹立된 1949年 10月 1日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中共의 「韓國無視」는 徹底하였다. 서울에 있는 韓國政府의 存在를 故意的으로 相對하지 않으려 했던것 같다. 中共과 北韓의 關係를 생각해보면 納得이 가는 處事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中共의 立場에서 보면 韓國에 無關心할 수는 없었다. 韓國에서 일어나는 事態들은 中共이 제일 큰 外交比重을 두어온 安保問題에 直結되었기 때문에 中共으로서는 비상한 關心을 두지 않을수 없었다. 中共의 韓國戰 때를 除外하고는 韓國政府를 相對로 非難은 別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別로 많지 않은 非難이지만 그것도 60年 11件은 주로 4.19를 契機로한 政府의 大衆彈壓 그리고 65年의 18件은 주로 韓國會談에 關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韓國은 中共이 政府樹立을 公表했을때 부터 줄곧 신경을 날카롭게 하여 中共의 一挙手 一投足を 지켜 보아왔다. 지난 25年間의 韓國新聞들을 들추어 보면 심심치 않게 中共을 非難하는 內容의 글을 찾을 수 있다. 政府의 公式 非公式 非難, 中共의 侵略性, 好戰性등등에 대한 抗議등을 비롯하여 非政府機關의 中共非難은 거의 日常化 되어 있었다.

이는 反共, 勝共의 國是 밑에서 韓國社會의 生理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中共自体에 대하여서는 깊은 關心을 보였다고 할수는 없을것 같으며 政府機關內에서

中共을 專門으로 다루는 獨立된 機構가 極히 最近에 까지도 없었  
다는 것은 좋은 例라 하겠다.

지난 四半世紀 동안 韓國問題에 대한 中共의 要求는 一貫하여 왔  
었다고 볼 수 있다. 즉 美軍은 南韓으로 부터 撤収하고 韓國軍에  
대한 軍援을 中斷하며 平양의 主導權下에 이루어질 平和的 南北統一  
이었다. 越南統一에 대한 미온적인 北京의 態度와는 相異한 對照를  
보이고 있음이 中共의 諸聲明에서 찾아볼 수 있는 內容이라 하겠다.

中共國內問題에 있어서는 毛沢東 다음가는 影響力을 行事하고 外交  
面에 있어서는 實際主役을 担当하는 周恩來의 對韓外交政策은 分明히  
몇개의 目標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北韓의 對日 공포증에 편승하여 駐韓美軍 撤収에 따른 韓國軍  
의 韓國化를 實現하고 이에 따라 發生하는 北韓의 對日境界로 인한  
對中共依存度의 深化를 낳게 하려는 것이다. 모스크바는 그들대로  
中共과 美軍의 協商이 北韓의 利益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事實을  
露骨的으로 表示함으로써 中共, 北韓接近을 防止하려 하고 있다.

둘째 周恩來는 南北統一問題를 政治的으로 解決하려는 北韓의 態度  
를 積極 권장하는 일이다. 그 自身 대만問題에 있어서도 이러한  
政治的 解決方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中共은 南韓에서의 美國影響力의 減少에 따른 空白을 利用한  
北韓의 武力侵略을 저지하고 日本이 이 空白을 메꿀 수 있는 時間  
的 여유를 주는 것이다.

단약 1949 ~ 50年의 經驗이 되풀이 될 경우 이것은 또다른 中

共의 介入을 招來할지 모르며 이번에는 그때와는 달리 敵對的인 蘇聯이 도사리고 있다는 嚴然한 事實이다. 닉슨中共訪問時 發表된 上海共同聲明의 內容, 즉 이 地域에서의 緊張緩和에 따라 駐台灣美軍을 撤收시키리라는 서약은 韓國에 있어서 安定을 選擇하는 中共 政策을 고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中共은 1972年 7月 4日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가져온 重大한 聲明에 이르도록 北韓을 고무시켰을 것임에 틀림없다.

네째 美軍을 대만, 韓國, 인도차이나에 駐屯시키는 것은 上海共同聲明에서 美國이 수락한 平和共存五原則에 위배된다는 事實을 지적하고, 戰爭을 防止하고 南韓에서 日本影響力 增大와 北韓에서의 蘇聯影響力의 高潮를 막기 위해 中共과 日本이 어떤 對策을 樹立할 것을 提議함으로써 駐韓美軍撤收를 더욱 加速化시키는 일이다.

다섯째 周恩來는 日本의 韓國構想에 관한 그의 聲明을 통해서 보여지듯이 日本의 利益은 蘇聯보다는 中共에 서울보다는 평양과의 同居를 통하여 메꾸는 일도 있으며 닉슨독트린에 의한 힘의 空白을 日本만이 一方的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事實을 日本에게 確立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힘의 空白은 分明 우리에게 最大關心事이며 그렇기 때문에 韓國은 닉슨독트린이나 美軍아세아 不介入政策 또는 中共과의 外交開設에 깊은 關心을 表示하고 있다. 變化하는 가운데 不確實한 國際環境에서 附保를 얻기 위한 한 方法으로서 韓國은 中共과의 交易에 관해 깊은 關心을 表示하기 시작했다.

진 眼目으로 볼때 中共의 對韓態度와 統一에 대한 자세는 大部分 日本關係, 그 改善如何와 大만解放에 대한 事態進展에 크게 左右될 것이다. 그러므로 中共과 日本關係가 계속 改善되어 나가고 있다면 적어도 短期的이라도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分斷된 大만政策은 無限定 수락할런지도 모르며 그렇게 될때 北韓 主導構下의 統韓은 오늘날 要望되는 것처럼 간절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北京側의 立場으로 보아선 그렇다.

어떻게 中共은 現實的으로 지난 1973年 12月 21日 한튼教授의 安全保障維持라는 「利益感覺」의 論理에서 駐韓美軍撤収는 당분간 바라지 않는다고 관측하고 있다. 요컨대 「真空地帶의 埋沒必至論」에 따른 蘇聯의 傳統的인 南進政策遂行으로 인한 韓半島의 蘇聯影響권으로의 完全陷入과 軍國主義日本의 리바이벌을 中共은 두려워 하는 것이다. 中共의 立場에선 韓半島는 蘇聯보다 훨씬 더 自体의 安保維持上 歯補車關係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次元에서 「平和로운 環境地帶—韓半島」의 造成의 設定을 國家利益追求上 中共은 念願한다는 現實的 對外政策 展開는 充分히 可能하다고 볼수 있다.

#### 4 独。 소국交正常化

##### 1) 소련의 对西方 接近政策

소련은 1960年代 後半 에 이르러 積極的인 对西方 接近政策을 보다 활발하게 展開했다.

소련의 对西方 接近政策의 수단은 東西緊張緩和政策이었으며 이에 따라 東西間의 多方面에 걸친 交流는 활기를 띠었다.

소련의 对西方接近政策은 그 初期에 소련과 東歐諸國家의 經濟的改善을 초래했으나 이로 말미아마 체코의 自由化運動은 東歐共產諸國家内에서의 소련의 宗主國的인 位置에 위협을 느끼게 했다. 따라서 소련内的 軍部勢力은 긴장 완화정책을 反對하는데 이르렀고 西方諸國家들과 親交關係를 맺는것 보다 共產諸國家自体内에서 소련의 宗主國的인 位置를 維持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对西方接近政策을 일사나마 中止시키고 이어서 체코를 侵攻하여 체코의 自由化 運動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소련의 체코侵攻은 소련의 位置를 다시 굳혀 주었으며 이러한 宗主國的인 確固한 位置를 前提로한 소련은 再次 对西方接近政策을 進展시켰다.

소련의 对西方接近政策은 結果的으로 東歐圈内에서 소련의 位置에 는 變動을 주지않았으나 美國의 对西方 支配力을 弱화시켰고 西方 諸國家間의 結束에 차질을 가져다 준것이다.

1970年 初에 이르러 브란트의 東方政策에 힘입은 소련은 独。 소 關係改善에 박차를 加했다. 그리하여 1970年 8月12日 独。

소間に 締結된 獨소條約이 獨소間의 關係改善을 위한 첫 結實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條約이 어떠한 過程下에서 締結될 수 있었던가를 고찰할 必要가 있다. 왜냐하면 이 條約이 西獨과 소련의 關係를 正常化시킨 條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0年 8月 12日 西獨과 소련間에 締結된 協定은 兩國間에 相衝되는 利害關係를 調整, 條文化한 것으로서, 그 要旨은 소련이 西獨을 國際政治社会에서 同等하고 信賴할 수 있는 國家로 認定한다는 것과 中央유럽에서 既存 政治的 및 領土的 現狀을 公式적으로 西獨이 受諾한 것을 골자로 한것이다.

이는 東西關係正常化를 위한 代價로 西獨이 히틀러 時代의 領土를 포기한다는 것이었으며 소련은 그 代價를 받은 前提下에서 獨소關係의 改善에 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를 미끼로 소련이 東歐圈內的 宗主國的인 位置를 보다 強化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西獨과 소련이 締結한 모스크바 條約締結 前後를 통하여, 소련 當局의 立場은 獨소關係의 改善은 東西關係改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西獨과의 實質的인 協力 發展인 經濟的 科學的 協力關係를 보다 擴大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고 소련이 公式적으로 宣言한바 있다. 同條約 締結에 따른 소련의 讓步는 西獨에 대한 소련의 公式的態度的 根本的인 變化를 들 수 있는 바, 그것은 첫째로, 西獨의 平和 내지 平和追求勢力이 形成됨

에 따라 1945年 이래 소련内部의 对 西独 強硬派의 見解를 무  
마 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 아마 소련이 自体의 安定을 土臺로  
西유럽 内에서의 活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確信을 얻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1970年까지 소련은 그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  
로 독일의 事態가 發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武力介入도 불사  
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때  
西独의 平和는 東유럽 狀態와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소련이 確信하고 있었다는 점과 西独이 東歐諸國의 安定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東歐에 대한 西独의 影響을 弱화시키기 위한 수단  
으로 소련이 西独과 모스크바 條約을 締結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西独의 公공연한 對소 攻擊은 소련 内部에서 共產陣營의  
붕괴를 目標로 한 帝國主義의 企圖에 대하여 경계를 要한다는 理  
念的運動에 重要한 役割을 해왔던 것이다.

어쨌든 모스크바條約은 兩側의 利害가 얽힌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西独보다는 소련이 得을 본것이다.

## 2) 西伯林과 소련의 새 戰略

獨逸은 戰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4大強大國과 講和條約을 締  
結하지 못하고 4大強國의 責任下에 놓여 있다. 특히 西伯林은  
特殊한 狀態下에 놓여 있고 全的으로 4大強大國의 責任下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독.소 會談에서 西伯林問題의 타결이 가장 難解한  
것이였다. 아무리 難解한 問題라 하더라도 西独의 立場에서 볼



때 西伯林問題는 相當히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는 問題이기 때문에 이 西伯林問題는 解決되어야 한다는 信念下에서 西獨은 끈질긴 努力을 傾注했다.

西獨은 伯林問題에 關해 西獨과 伯林間에는 政治的 紐帶가 持續되어 自由로운 伯林通行을 保障받아야 한다고 主張했으나 소련은 西獨과의 協商은 伯林 自由通行問題와는 關聯이 없는 別個의 問題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맞서다가 態度를 緩和하여 「同時取扱」에서 「副次的 取扱」으로 양보했다.

1960年代初 이후 伯林에는 實質的 危機는 없었지만 소련은 西伯林的 地理的條件을 西方強大國에 對한 壓力手段으로 이용했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 西獨經濟復興과 때를 같이 하여 西伯林的 自由通行이 東獨의 地位를 위협하고 나아가서 東獨에 對한 소련의 影響力이 弱化될 것을 念慮한 나머지 이를 방해할 의도하여 西伯林에 위기를 造成하면서 東獨內에서의 소련자척의 位置를 구축해 나갔다. 이와 같이 西伯林的 弱點을 自國의 利益으로 利用했던 소련이었기 때문에 西獨과 西伯林自由通行問題를 모스크바 會談에서 論議한다는 것을 소련이 기피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소련은 한가지 讓步條件으로 西獨과 모스크바 條約을 締結하면서 소련의 利益을 西獨側으로부터 保障받기 위한 方便으로서 西獨을 견제할 수 있는 反對勢力의 自由活動이 西伯林內에서 保障받게끔 했던 것이다.

소련當局者들은 본 政府와의 關係正常化에 있어서 西伯林自由通

行은 無關한 것을 前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소련当局者들이 생각하게된 重要한 原因은 西獨이나 西方諸國家들이 東歐를 위협하고 소련의 宗主國的인 位置에 위협을 加할때 西伯林問題가 解決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방편책으로 西伯林을 利用할 수 없다는데 根拠가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또 하나의 理由는 東獨의 울브리트의 壓力에 기인한다.

東獨의 立場에서 볼때 西伯林은 東獨의 安全을 항시 위협하는 直接的인 重要한 要因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東獨의 울브리트는 西伯林을 西獨으로부터 完全孤立시키기 위한 方策으로 西伯林 自由 通行을 妨害해야 했기때문에 東獨의 利益에 反하는 어떠한 協定도 소련과 西獨間에 이루어 져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에서 소련에게 방해압력을 加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東獨은 소련에게 西獨政府로 全共產地域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위협이라고 宣言하였고 소련은 東獨의 그와 같은 公共然한 憂慮를 無視할 수 없었으며 나아가서 東獨의 힘이 弱化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울브리트는 社會主義陣營에 대한 東獨의 影響力を 增大시킬 수 있는 政策을 採択토록 소련을 誘導했다.

1970年 초가을 모스크바 当局은 첫째, 브란트 政府는 國內事情의 어려움 때문에 초조한 나머지 自体 問題를 解決함이 없이 모스크바 條約批准을 위한 소련의 壓力을 받아드린 것이며, 둘째로 西方聯合國은 伯林問題에 대해 完全한 意見의 一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時日이 要할것이며, 따라서 소련은 西獨과 모

스크바 協商을 進行시키는데 있어서 西伯林問題에 對하여 소련의 利害와 東獨의 利害를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도 독소의 모스크바 條約을 締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970年 8月初까지도 소련의 그와 같은 態度는 確固不動한 것이었으나, 1970年 8月末 西方側이 伯林問題에 대한 基本方針에 意見의 一致를 보고 또 더욱 1970年 11月 헛세 地方 選舉가 브란트 政府의 立場을 더욱 強化시켜준 結果로 나타남에 따라서 소련지도자 들은 伯林協定에 대한 보다 明確한 提示가 必要하다는 結論을 얻고 모스크바條約 推進의 徵照로 看做되는 戰術의 再考를 표시하고 伯林四強国会談에서 소련 자신이 보다 行動自由를 갖고자 東獨指導者에게 모종의 壓力을 가하기 시작했다. 1970年 11月 中旬 폴란드 西獨間의 關係 正常化協定은 소련의 그와 같은 立場을 두둔하게 되었으며, 이 兩國間의 協定도 結局에는 滿足할만한 協刀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될 성질의 것이었다.

1970年 12月 2日 와르샤워 同盟國指導者들이 東伯林에서 會合을 갖었었다. 이 會談에서 伯林에 대한 와르샤워 同盟國의 地位를 조정하는 것과 西伯林에 대한 問題가 가장 重要한 議題였는데 이 頂上會談에서 西伯林에 대한 問題가 어느程度 合議를 보았으나 여기에서 會議된 事項이 東獨의 울브리트를 完全히 滿足시킬만한 것은 못되었다.

이러던중 폴란드의 고물카체제의 崩壞는 東歐諸國과 소련當局에

不安을 안겨 주었다.

따라서 1971年度の 소련의 对西方政策은 어느程度 混亂에 빠진 政策이었다. 그러던중, 1972年 2월에 이르러 폴란드의 애드워드 킬케(E.Gierke) 政權이 安定을 되찾고 東独의 共産党인 社会統一党이 全党大会를 끝마친 것을 기화로 西独의 브탄트政府와 西方3大強大國에 西伯林問題에 대하여 소련이 어느程度 讓步할것을 줌으로써 소련이 西独과 모스크바 条約을 하루라도 빨리 締結할 意思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로서 얼마동안 봉착상태에 있었던 독·소關係에 새로운 돌파구가 나타난 것이다.

소련이 西独의 要求에 応할 것이라는 最初의 徵照는 第24次 소련 共産党 全党大会에서 소련이 西歐 自由陣營과 東西緊張緩和를 위하여 協商하여야 한다는 多數論이 대두된 것을 그 实例로 들 수 있으며 此外에도 西独의 브탄트政府가 독소 모스크바 条約과 4大占領強大國 伯林協定은 西伯林自由通行을 土台로한 內容이어야 하며 獨소 모스크바 条約이 締結 調印되기 前에 4大強大國은 伯林問題에 대하여 合意해야 한다는 見解에 同意한다는 그로미코의 發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련当局의 对西独協商 態度變化는 앞에서 指摘한 外的要素 此外에도 東独의 울브리트가 실각하고 새로이 호네커가 등장 함에 따라서 東独内の 새로운 指導体制가 정비되어 그들로부터 소련이 西伯林問題에 대한 重要한 양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과

그 밖에도 1971年 5月 20日 合意 發表된 美소 兩國間의 戰略武器制限 範圍와 性格에 있어, SALT 條文에 非制限武器의 競爭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서 소련에게 伯林問題를 양보하도록 作用했으며, 끝으로, 닉슨대통령의 北京訪問으로 美國과 中共間의 和解氣運이 소련의 對西方協商을 促進시켰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71年 9月 3日 戰後 發展된 東西獨의 現狀을 公式적으로 認定하는 4大強國間의 伯林協定이 調印되었다. 西獨과 伯林間에는 密接한 紐帶가 있다는 것을 소련이 伯林協定에서 公式적으로 認定한 점은 소련의 重大한 讓步였으며, 그것을 가능케 한것은 西獨側이 獨逸의 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手段으로 伯林을 橋頭堡로 利用하지 않겠다는 西獨의 意圖가 소련當局者들에게 반영되고 東獨의 安全을 褫치는 一切의 行爲를 西獨이 포기 함으로써 東獨의 國際社會進出의 門戶가 개방되고 이로 말미암아 東獨의 安全에 위협될만한 要素가 除거되었다는 自信感에서 同 協定의 調印이 可能했던 것이다.

이 4大強國 協定이 締結된 후 소련의 브레즈네브는 東獨이 西獨과 하루 빨리 東西獨基本條約을 締結토록 壓力을 加했으며 브란트政府는 西獨內의 野黨과 싸우면서 모스크바 條約과 와르샤워 條約을 議會가 批准하도록 努力했다. 소련이 西獨과의 關係 正常化를 希求한 나머지 모스크바 條約이 하루 빨리 締結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西獨의 브란트政府가 要求하는 伯林問題를 양보

하면서 4大占領国伯林協定을 締結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西独内の 野党이 독소 모스크바 條約과 와르샤워 條約의批准을 지연 시키고 있기때문에 소련은 브란트政府에 대한 压力手段으로서 同條約을 西独議會가 批准할 때까지 伯林協定の 最終議定書에 調印할 것을 拒否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소련의 態度는 모스크바 條約이 西独內에서 批准되지 않음에 따라서 모처럼 推進되고 있는 東西間의 緊張緩和努力에 새로운 차질이 發生될 수도 있다는 것을 西方側에 알리는 새로운 警告戰略으로도 利用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伯林協定 最終議定書에 調印할 것을 소련이 拒否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西独의 野党인 CDU/CSU (基民党/基社党)의 態度에 좀처럼 變化가 오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1972年 봄에 이르러서는 브란트 政府의 議會 多数勢力이 점차 침식되어 감으로써 同條約批准이 경우에 따라서는 否決되리라는 惡化狀態로까지 發展되어 가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은 西独議會가 同條約을 否決시키는 경우는 東西關係는 冷戰狀態로 환원될 것이라고 경고 했으며 이러한 경고는 再協商을 要求하는 西独內 野党的 意見을 封鎖하려는 戰略으로 評價되기도 한다. 소련의 對西独 戰略은 이것으로서 끝난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方面으로 西独內 野党的 主張을 일면 반박하는 한편, 西独에게 돌아갈 協商의 利得에 대해 과시하고자 노력했다.

分斷된 伯林의 現状改善은 모스크바 当局과의 協商으로부터 西独側이 얻을 수 있는 利得가운데서 가장 큰 收穫이라 할 수 있었

다. 이리하여 1972年 4月初 소련과 西独代表는 貿易 및 經濟的 協力에 관한 協助文에 假調印했다. 이것은 4大國伯林協定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소련이 베르린 協定の 効力發生前에 그와 같은 條文에 署名을 한 사실이나 西独貿易組合總會에 소련 代表를 派遣할 것을 發表한 소련의 處事 등은 伯林狀態를 改善할 眞意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事實로 미루어 보아 소련은 유럽의 緊張緩和에 分明히 伯林問題를 包含시킨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 3) 소련의 對유럽政策

東西獨間의 協商이 滿足스러운 打結을 본 前後의 소련의 對西方政策은 뚜렷이 구별되는데, 그 前期에는 冷戰과 軍備競争이었고, 새로운 後期 段階에는 全歐州의 經濟的 協力關係改善인 것이다.

1971 - 72年間 소련의 對西方 外交協商에 있어서 公式的·半公式的 課題는 첫째로, 유럽 각국과 특히 西獨 및 프랑스와 相互關係增進이었고, 둘째로, 歐州安全과 相互協助問題 解決을 위해 早速히 全유럽會議(CSCE)를 소집하는 것이었다.

1969년에 이르러 對西方 緩和政策이 再開된후 소련도 프랑스와의 紐帶關係를 改善시키고자 努力했으며, 이것은 西獨과의 關係 개선에 重大한 影響을 미쳤다. 소련의 指導層은 모스크바條約의 調印이 유럽에 있어 소련의 協商對象國으로써 西獨만이 唯一한 國家

가 아님을 애써 표시하려고 했으며, 이 당시 소련의 外交政策 方向轉換에는 对프랑스 關係가 对西独關係와 同等한 重要性을 갖는 것이었다.

소련은 全유럽 會議開催 運動을 展開한바 그 會議가 西유럽을 견제하는 지렛대 役割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나아가서 東歐 諸國의 安全과 利害關係가 얽혀 있으며 소련同盟國의 團結을 저해하는 加熱化하는 유럽統合 運動을 저지하는 手段이 될 수 있다고 看做했던 것이다.

이러한 복선에서 소련이 主動하는 全유럽會議가 開催되고자 함에 美國은 全유럽會議가 美國과 유럽諸國間의 利害關係를 兩立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美國도 同會議에 參加해야 한다는 主張을 하겠음 되었고 이에 맞선 소련은 美國의 政策이 유럽州大陸의 平和 安全을 위협하는 反平和 侵略政策이라고 非難하면서 美國의 全유럽 州會議 參席을 초기에는 反對하다가 態度를 變更하여 와르샤워 同盟國이 美國의 全歐州會議를 同意했던 것이다. 이러던중 美國과 歐州諸國間의 經濟去來關係上 紛爭이 일고 그와 때를 맞추어 發生된 國際通貨危機는 소련의 그와 같은 主張을 正当化 시키는 決定的 根拠가 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소련은 全유럽 會議가 西유럽이 美國과의 關係로부터 받는 屈辱과 좌절감 그리고 不安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安全한 길로 인도하는 提案이라고 力說했던 것이다.

소련이 全유럽會議를 주선하고자 하는 運動의 背後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目的이 全大西洋同盟의 創設에 있다면 同會議準備로부터 기대되는 利得은 東유럽의 結束強化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70年 6月 下旬에 와르샤워 조약국 外相들이 各國을 個別的으로 하는 多国家的會議를 提案하자 소련은 西獨과의 相互協商에 應할 것을 表明했으며 東歐諸국이 團合하여 集團적으로 이에 呼應해 줄것을 바랐다. 이것이 示唆하는 바는 東歐諸국이 全유럽會合의 準備를 그들 각국이 獨自적으로 西方側과 接觸하려는 것을 소련이 미리 알아채고 이로 말미암아 소련의 宗主国的인 位置에 다소나마 차질이 생길까 念慮한 나머지 소련의 宗主国的인 位置를 維持시키기 위한 方策으로서 東歐諸국이 西獨과 協商하더라도 이는 完全独立的인 協商이 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소련의 同意가 必要하다는 것을 認識시킴으로써 와르샤워 同盟國을 効率的으로 統制하고자 하는 소련의 政策이었던 것이다. 소련이 西獨이 全유럽會議에 參加하는 것을 願하는 重要的 原因中的 하나로 西獨이 다른 유럽國家와 對等한 資格으로 參與하는 경우에 同會議가 完全的 機能을 發揮할 수 있으며 全유럽 外交關係樹立에 西獨의 介入自体가 東獨國家 및 政府의 安定을 보다 鞏固히 할 수 있다는데 있는 것이다.

소련은 이와 같이 더욱 굳건한 立場에서 西方側과 經濟的 技術的 協力을 擴大하고 또 中央유럽에 있어 軍備減縮을 協商하려고 希望했다. 다시 말하면 소련의 希望은 첫째, 유럽內的 現狀態를 固定化하고, 둘째, 西方側과 技術的, 科學的 經濟的 關

係를 긴밀하게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와같은 소련当局者들의 새로운 戰略이 成功될때 소련은 西方側...  
으로부터 얻은 經濟的, 技術적 利益을 소련 國民經濟에 配分시키  
므로서 소련國民의 經濟水準을 向上시켜 國民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과 나아가서 유럽 安保가 安定되므로서 소련의 政策  
을 並細並에 集中시킬 수 있다는 計算에서였다.

## 5 結論 誘導方案

以上에서의 分析에 立脚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韓國이 中共과의 關係를 改善함에 있어서 中共으로하여금 南北韓에 대하여 等距離外交를 行하도록 하는 때는 몇 가지의 先行條件이 必要할 것 같다. 왜냐하면 等距離外交라는 概念은 相互間의 國交를 前提로 하는 것인데 韓國과 中共은 아직도 對話조차 못하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韓國이 中共과의 關係에 있어서 外交政策의 目標을 中共의 南北韓에 대한 等距離外交에 둔다면 그것은 상당히 長期的인 目標에 속한다는 것은 自명한 일이다.

여기에서 생각되는 것은 그러한 長期的目標에 先行되어야 할 短期的 目標의 設定이다. 우리는 韓國의 外交가 中共과의 關係에서 設定하여야 할 短期的 目標은 對話의 通路를 開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對話를 正常化 시키기 위해서는 兩國의 外交使節間에 對話가 自然스럽게 進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韓國이 中共과의 對話를 시작하고 修交의 길을 開拓하여 國交正常化를 追求하는 데는 적어도 두가지의 方案이 있을 것이다. 그 중의 하나는 間接的인 接近方案이며 다른 하나는 直接的인 接近方案이다.

間接的 方案은 제3국을 거쳐서 中共과의 對話의 길을 모색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友邦國家를 通하는 方法도 있을 것이며 中立國家

를 利用하는 길도 있을 것이다. 友邦國家들 중에서 韓國과 中共  
間에 橋梁的 役割을 할 수 있는 國家는 日本과 美國이다.

日本을 通하는 方案이 가지고 있는 長點을 생각하면 대체로 다  
음과 같다.

첫째, 日本政府는 韓國과 中共間의 修交를 위하여 努力할 것을  
이미 시사한 일이 있었다.

둘째, 日本이 韓半島에 對하여 가지고 있는 關心이나 利害關係는  
美國의 그것 보다도 훨씬 上昇하고 있다.

셋째, 韓國과 日本은 大陸棚共同開發에 관한 協定에 調印한 바  
있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間接的 接近方案으로서 日本을 選択  
할만한 理由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을 橋梁으  
로서 利用할 때 警戒하여야 할 點도 적지 않다. 그것을 要略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日本은 中共에 對하여 罪意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韓國이 日本을 通하는 경우는 不必要한 心理的 負  
担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日本은 韓國과의 關係보다 中共과의  
關係를 重視하고 있다. 좀더 正確하게 말하면 日本은 韓國을 蔑  
視하는 傾向마저 가지고 있다. 셋째, 中共의 立場에서 볼 때 韓  
國이 日本을 通하는 것을 탐탁스럽게 생각지 않을 理由도 있다.  
그것은 과거 日本帝國이 韓半島를 強占하고 그것을 發판으로 하여  
처음에는 滿洲를, 다음에는 中國大陸을 侵攻했던 事實에 歸着된다.  
그러므로 韓國이 中共과의 對話의 窓口를 開拓하고 往來의 通路  
를 新設하는 데 日本을 通하는 것은 賢明치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日本을 外面해도 좋다거나 日本의 協力을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日本의 協力을 얻는 것은 물론 必要하다. 가령 어느段階에 가서 日本이 北韓을 承認하는 경우에 中共도 韓國을 承認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몹시 重要的 布石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美國을 通하는 方案이 가지고 있는 長點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美國은 中共에 대하여 日本과는 달리 罪意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中共으로서도 朝鮮과의 關係를 考慮하여 美國을 利用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現代版 以夷制夷의 政略이라 볼 수 있는데 따라서 中共은 美國과의 關係를 自體의 安全을 위하여 重視하고 있다.

셋째, 美國과 中共은 점차적으로 「和解에서 協力으로」 그들의 關係를 개선해 가고 있다. 특히 美國은 現實적으로 軍隊를 韓國에 駐屯시키고 있는 國家이다. 따라서 韓半島의 平和에 關해서 앞으로 美國과 中共間에 어떠한 양해에 도달할 可能性도 있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美國이 韓國과 中共사이에 橋梁的 役割을 하면서 中共의 韓國承認과 美國의 北韓承認을 교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短點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美國과 中共은 아직도 大使交換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간에 解決하여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中共은 内部的인 抵抗때문에 對美接近의 速度를 늦추고 있다는 感

을 주고 있다. 批林批孔運動의 소용돌이 속에서 對美接近을 資本主義的 樣式을 導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反對하는 勢力도 있다. 따라서 韓國政府가 美國을 통하여 修交하고자 시도하는 데도 이러한 反對勢力이 否定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韓國政府의 威信을 지킨다는 면에서 말하면 間接的인 接近方法은 모두 탐탁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中立國을 통하는 경우에는 韓國이 생각하는 中立國을 中共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될 것이다. 또한 當該 中立國이 과연 韓國과 中共사이에서 橋梁的 役割을 行할 意思와 能力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로 될 것이다.

요컨대 西方國家를 통하거나 또는 中立國을 통하거나 間接的 接近方法에 共通되는 것은 自主的 外交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韓國政府의 立場에서만이 아니라 他國 특히 中共의 立場에서 볼 때 自主外交의 概念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留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負擔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은 다른 接近方式인데 그것을 우리는 直接的 接近方法이라 부른다. 部分的으로 또는 一時的으로는 이 方法이 이미 使用되고 있는 셈인데 지금까지의 中共의 反應은 대체로 消極的이며 否定的이었다. 따라서 緣기에서 檢討할 것은 直接的 接近方法을 補完하는 것이다. 現時點에서 말하면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努力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첫째, 中共 研究民間團體의 育成이다. 이것은 中共의 現實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必要에 의하여 관찰하고 分析하기 위해서 有用한 가장 초보적 조치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民間團體의 存在는 中共과의 非公式的인 接觸이 可能하거나 必要할 때,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可能하다면 華僑의 中共送金을 許用한다. 이것은 額數로 보아서 클 리는 없지만 中共과의 修交를 위해서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셋째, 言論人, 藝術人, 學者, 體育人等의 中共訪問을 交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여 韓國代表가 UN本部 또는 其他 地點에서 中共代表와 接觸한다. 그것에 對하여 相對方이 積極的인 反應을 보이면 特使를 派遣한다. 여기에서 한번 더 留意할 것은 中共代表와의 接觸을 直接的으로 展開하는 때라 할지라도 美國, 日本, 캐나다等 友邦國家와의 關係를 緊密하게 維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韓國이 이러한 점을 疏忽히 하는 경우에는 韓國의 立場이 외롭게 될 뿐만 아니라 弱化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間接的 및 直接的 接近方法의 長點과 短點을 分析하였다. 兩者가 가지고 있는 長, 短點을 고려할 때 狀況의 變化와 必要에 따라서 두가지의 方法을 折衷, 綜合하는 것이 보다 現實的이고 效果的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어느 接近方法을 挾하더라도 共通的으로 韓國政府가 주의하여야할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첫째, 北傀의 猛烈한 妨害工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從前까지의 手法으로 미루어 보아 北傀는 韓國의 中共과의 接近을 저지하기 위하여 韓國代表에게 心理的 壓力만이 아니라 物理的 壓力가

지도 加할 우려가 있다. 둘째, 周恩來의 協商觀이다. 이것은 다른 共產主義者들에게 共通되는 것인데 그는 말하기를 「協商도 戰爭」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協商을 비지니스로 보는 西歐式 思考와는 根本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自國의 단순한 利益만이 아니라 相對國의 破壞, 또는 破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그들을 相對하기 爲해서는 먼저 높은 水準의 政治的 安定과 經濟的 繁榮이 必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國力의 培養은 이러한 面에 있어서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中共이 韓國의 修交提議에 好意的 反應을 보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條件이 成立되었을 때일 것이다. 그 중의 하나는 中共의 安保를 위하여 韓國과 修交하는 것이 有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韓國과의 修交를 通하여 얻을 수 있는 實利가 北傀의 反撥을 能가할 만큼 큰 경우이다. 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中共과 北傀의 關係가 惡化되어 北傀가 親소-辺倒로 기울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條件 또는 그와 類似한 條件들은 동시에 成立될 수도 있고 個別的으로 成立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릇된 判斷에 의하여 行動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어느 경우이라 할 지라도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韓國政府가 中共과의 修交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 目的이 具體적으로 設定된다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危險負擔을 客觀적으로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中共과의 修交를 맺는 경우에 國內에



서 惹起될 수 있는 政治的 狀況에 對해서도 일단 고려해 두어야 할 것이다. 가령 지금으로서는 요원하지만 中共과 修交가 되어 中共人이 往來할 수 있게 되었을 때 中共은 華僑를 共産黨의 指導下에 두려고 劃策할 것이며 이것을 北傀가 利用하려는 事態도 發生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의 假定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또한 事態가 이렇게 發展되지는 못하도록 統制를 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中共과의 修交에는 이러한 危險性이 수반된다는 사실만은 強調할 必要가 있으며 이러한 것에 對한 對策과 함께 우리가 中共과의 修交를 通하여 얻고자 하는 것을 具體的으로 檢討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過程을 마치면 本論文에서 考察한 接近 方案中 어떤 것을 挾하는 것이 보다 有效할 것인가를 判斷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